

# 광주 남구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분리수거 한다

단독주택·상가 3월까지 계도기간  
품목따라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야  
혼합배출, 수거량·수거비용 급증

2022년부터 재활용 가능자원은  
요일별·품목별로 배출해 주세요!



광주시 남구에서 요일별로 재활용품 수거를 달  
리 하는 '품목별 요일제 수거'를 실시한다.

생활 쓰레기 올바른 배출만으로 쓰레기의 40%  
를 감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  
순환에 앞장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상가에 대한  
품목별 요일제 수거를 오는 3월까지 계도 기간 적  
용하며, 4월부터 품목별 배출일이 아닌 날짜에 물  
품을 버릴 경우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  
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이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  
주택, 상가 지역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을 지정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  
면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상가 지역의 경우 재활용  
전 품목을 한 번에 통합 배출했으나, 품목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야 수거를 한다.

요일별 배출이 가능한 품목은 월요일과 수요일  
에는 플라스틱과 종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스티  
로폼과 비닐, 금요일에는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토요일에는 고철과 캔, 유리병이다.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가 최근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투명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점검하고 있다.

(북구 제공)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집하장에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시로 배출할 수 있으며, 남구는 집하장  
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요일에 맞춰 해당 품목  
만 수거하고 있다.

품목별 요일제 수거를 도입한 이유는 오염물질  
이 섞인 물품 및 여러 종류의 물건을 혼합 배출하  
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차량으로 먼저 수거한 뒤  
재선별하는 공정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거량이 늘어나 처리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 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최근 3년간 남구내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  
폐기물 양은 지난 2019년 2639t에서 2020년  
4425t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4477t이나  
수거했다.

이에 따른 처리 비용은 2019년 5억1624만원에  
서, 2020년 11억7639만원으로 2배 가량 급증했고,  
2021년 처리비용은 11억9700여만원에 달했다.

남구는 품목별 요일제 수거가 조기 정착과 시민

들의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리플릿과 현수막,  
전단지, 자원순환 에코백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소식지, 구청  
SNS를 통해서도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전면  
시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혼합배출 및 요일제 위  
반 시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며  
"자원 재활용 및 수거업무 효율화 향상을 위해 주  
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북구 복지정책, 시·정부 잇단 수상

### '복지멤버십' 장관상

광주시 북구가 광주시와 정부로부터 복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우수 자치단체  
포상'과 '2021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멤버십 운영' 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기  
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출산·돌봄 정책 평가로 광주시에서 3년 연  
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이 보유한 개인의 소득, 재산 정보를 분석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준다. 북구는 지난해 복지안전망 SOS 알리미  
사업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수급자  
를 발굴, 적극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구는 맞춤형 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7만여 명의 수혜 대상자를 멤버  
십에 가입시켜 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북구는 광주시가 출산 대응과 양육 진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출산장려 및 돌  
봄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동구 종량제봉투 모바일 주문시스템 도입

### 연중 무휴 24시간 주문

###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도 제공

광주시 동구가 광주시 자치구 최초로 종량제  
봉투 판매업체의 주문을 인터넷으로 24시간 받  
는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주  
문 편의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실  
시한다.

이번 인터넷 판매는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방식  
이 판매업소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대금  
을 납부하고 구청으로 전화해 물품을 주문하는 방  
식인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던 점을 고

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는 인터  
넷 또는 모바일로 연중 24시간 주문이 가능하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를 통해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 종량제봉투 주문 시 결제금액, 배송일, 계좌  
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인택 동구청장은 "2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종량  
제봉투 판매방식을 편리하게 개선했다"면서 "다양  
한 분야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동구 일상회복 준비 재택치료 관리 전담팀 운영

광주시 동구가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  
진자 증가로 인해 병상 부족 등 문제가 생긴 점을  
토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관리 전담  
팀'을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그동안 재택치료 대상을 미성년자 및 미  
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는 '70세 미만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  
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재택치료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재택치료 추진단  
을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 및 진료지원을 총괄하  
는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격리관리  
반을, 별도로 자가격리관리반을 꾸려 '재택치료  
관리 전담팀(이하 전담팀)' 운영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기준 동구지역 1일 평균 확진자는  
4.4명, 자가격리자는 24.4명으로, 전담팀은 ▲건  
강모니터링(1일 2회) 응급민원 처리 ▲자가격리  
자 불시점검 실시 ▲무단이탈 발생시 신속대응 ▲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적인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을 위해 동구  
지역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광주기독병원과 서  
광병원 등 총 2곳 지정하고, 치료키트와 마스크,  
폐기물 봉투, 즉석식품 등이 포함된 격리키트를  
배부하고 자가격리앱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해 이  
탈 방지에 나서고 있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  
계를 구축하고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재택치료  
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도모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  
령자 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은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  
능한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으로, 지난해까지 설립·지정된 고령자 친화기업은  
총 299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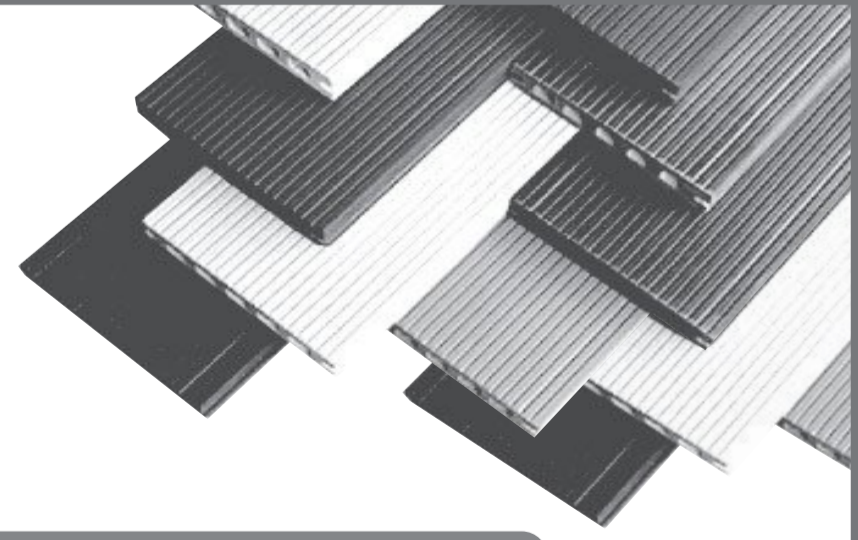
고령자 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로부터 최대 3억원  
의 사업비와 기업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  
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오는 6월 30일까  
지 상시 진행된다. 신청 유형은 '창업형'과 '인증  
형' 두 분야로 구분된다.

노인 적합 직종의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창업형'  
의 경우 기본자금 1억원을 지원받으며 목표 고용 인  
원당 1천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은 '인증  
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5  
명 이상을 고용한 상태여야 하며, 고용환경 개선  
용 기본자금 1억원에 추가 고용 인원 1명당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